

담양 대담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대만 우상린·윤수정 부부

도시와 강이 어우러져 흘러가면 어떨까요 “담양처럼”

“예전부터 사람들의 삶은 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양은 강과 잘 어우러진 삶을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담양과 영산강을 모토로 많은 대도시가 파괴되지 않은 강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담양 대담미술관이 진행하고 있는 '2014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타이페이 출신 국제 독립큐레이터이자 작가 우상린(Wu Shanglin), 윤수정씨 부부는 담양에 대한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우상린씨 부부는 지난 8월 초부터 담양에 머물면서 주변 자연과 지역민들의 삶의 흔적을 주제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중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대만에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한국행에는 두 살배기 아이도 함께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 2~3년 동안 대만과 한국, 일본을 오가면서 '도시 개발과 강'을 주제로 국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담양에 머물게 된 계기는 지난해 우상린씨가 광주를 방문하면서부터다. 우상린씨는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와 만나 “광주에서도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진씨는 “강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도시 중 하나가 담양”이라고 소개했다.

대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공부한 우상린씨에게 담양은 흥미로운 곳으로 비춰졌다. 머물고 있는 미술관 앞에 흐르는 강과 뒤편으로 펼쳐지는 대나무 등 자연경관은 작가에게 ‘여행’이라는 테마를 선물했다. 또 매일같이 찾아오는 관광객과 강 옆으로 늘어진 국수가게는 우상린씨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우상린씨는 이런 것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담양에 머무는 ‘여행’을 통해 느낀 것들을 ‘가족이란 무엇인가, 집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작품에 담아낼 계획이다.

우상린씨는 “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족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스스로에게 집이 가족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구성원들이 가족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가족에 대한



담양 대담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대만 우상린·윤수정 부부.

대만·한국·일본 오가며 ‘도시 개발과 강’ 프로젝트 진행

낯선 곳에서 느낀 ‘가족·집’ 작품에 반영…27일부터 전시

개념을 인터뷰한 내용과 주민들의 사진을 기본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또 퍼포먼스 등을 통해 담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와 관광객들의 인상을 담는다. 지역 여성들의 웃을 빌려 입고 외지인들 앞에서 선보이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을 전공하기도 했던 윤수정씨는 그동안 도시개발로 파괴돼 가는 자연에 관한 작품을 해왔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식물, 땅, 강 등이 담겼다. 남편과 함께 해오고 있는 ‘도시 개발과 강’ 협업 프로젝트도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담양에서는 사람들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윤수정씨는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50~6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냄새 등 시간과 그들의 삶이 묻어 있는 물건들에서 이야기를 찾아 작품을 풀어낼 계획”이라며 “그 안에는 대나무와 강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도시가 급속도로 넓어지면서 사실상 강은 사라져 가고 있다”며 “아직도 강과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민들의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우상린·윤수정 작가 부부의 레지던시 결과물은 오는 27일부터 9월14일까지 담양 대담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061-381-008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옛날 영화 보러간다

광주극장 21일 1955년 작 ‘사냥꾼의 밤’

조대영 광주독립영화협회 대표와 대화도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지난달부터 매일 한 차례 클래식 영화를 감상하는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 7시에는 찰스 로트 감독의 ‘사냥꾼의 밤’(1955·사진)을 상영한다.

해리는 형무소에서 알게 된 사형수 벤으로부터 은행에서 훔친 돈을 두 명의 아이

들에게 맡겨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전도사 행세를 하며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나타난다. 벤의 유족에게 접근한 그는 과부인 윌라와 결혼한 다음 그녀를 죽이고 이어서 아이들에게 돈의 행방을 묻는다.

로버트 미첨, 셸리 윈터스, 릴리안 기쉬가 주연을 맡았다.

상영 후에는 조대영(광주독립영화협회 대표)씨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앞으로 ‘오즈의 마법사’(9월20일), ‘세상의 모든 아침’(10월18일), ‘금지된 장난’(1952), ‘월부르의 우산’(1964) 등이 상영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춤·노래·연주로 버무린 ‘바리데기 설화’

‘달빛 오디세이’ 19일 광주문예회관…이이남·나빌레라 무용단 등 참여

김현옥 설화 음악으로 풀어

지난 2009년 환벽당에서 처음 열린 ‘달빛 오디세이’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달빛 아래 모여 앉은 이들은 김현옥(사진)씨가 작곡한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섬진강 달빛차회’, ‘달빛향, 바루연’(무각자), ‘일본 교토 고향의 집-크리스마스 연주회’, ‘유배의 노래’(전통문화관) 등이 ‘달빛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공연됐다.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김씨는 국악학과에서 다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고, 그의 작업들은 서양음악에 한국적 색채가 가미되며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



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달빛 오디세이’는 ‘바리데기’를 주제로 열린다.

바리데기는 설화의 주인공이다. 오구대왕의 일곱번째 딸로 태어났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버려진 그녀는 자기를 버렸던 부모를 용서하고 죽은 부모를 다시 살린다.

음악회 구성은 ‘바리데기’의 서사적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서곡에 이어 ‘바리데기’, ‘궁막’, ‘뽕’, ‘저승으로 가는 길’, ‘저승에서’, ‘장례식’, ‘길닦음’, ‘산자를 위한 노래’ 등이 연주된다.

김현옥 작곡가는 다양한 악기와 음악 장르로 바리데기 설화를 풀어냈다. 목소리, 현악기(바이올린·첼로), 바리, 대금, 전통 풍물, 징, 타악 앙상블 등이 어우러지고 노래, 연주, 범패, 춤, 영상

이 가미된다. 범패를 선보이는 해공님을 비롯해 김형석, 한나리, 윤성근, 박효은·풍물연희예술단 광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나빌레라 무용단(한명선) 등이 함께 참여했다.

‘달빛 오디세이’는 11월에 한 차례 더 열린다. 문의 010-2324-86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다와 도자기 … 묘하게 어울리네

김재민 초대전 … 은암미술관 21~27일

백사장과 함께 저 멀리 수평선이 펼쳐진다. 하늘과 백사장, 수평선이 경계를 이루고 그 사이를 청화백자가 비집고 들어섰다. 자칫 이질적인 느낌을 선사할 것 같은 청화백자의 빛깔은 바다의 청색, 하늘의 푸른색과 은은한 조화를 만들어 낸다. 묘하게 어울리는 푸른색의 향연 속에 꽃피운 향아리가 바다의 잔잔함처럼 깊은 서정성을 만들어낸다.

은암미술관은 21~27일 한국화가 김재민씨를 초대해 ‘꽃을 피운 향아리’를 주제로 기획 초대전을 연다.

작가는 그동안 보여줬던 심상적이고 향토적인 풍경화에서 벗어나 꽃이 있는 달향아리나 청화백자 등 자연과 향아리를 그린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김씨는 안료를 신중하게 다뤄 섬세한 느낌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특히 근작들은 서정성과 낭만성이 돋보인다. ‘꽃향아리’, ‘피리 부는 소년’ 등 작품은 조선백자를 화면에 대담하게 배치하고 백자 안에 민화나 인물화 등을 디테일하



‘꽃향아리’

게 그려 넣어서 내면에 잠재된 낭만성을 끌어낸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일본 교토 시립예술대학원에서 채색화를 공부했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창업 설명회

광주문화재단 18일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문화예술 거점기획 및 운영전문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 문화기획자 및 문화예술 분야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이성 광주사회적경제지원네트워크 대표가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설계과정’을 주제로 강의하고, 김정현 상상창작소 봄 대표가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 창업과정 및 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문화예술 거점기획 및 운영전문가 양성사업’교육생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55. /이보람기자 boram@

“16일까지 ‘세월오월’ 전시 안하면 작품 철거”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 탄원서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전시 유보 논란이 결국 국내 작가들의 작품 대거 철거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작가들이 작품을 철거할 경우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은 반쪽짜리 전시회로 전락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 ‘달콤한 이슬, 1980 그후’에 참여한 작가 14명은 14일 윤정현 광주시장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용우 대표이사에게 보낸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참여작가 탄원서’에서 “작가가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했으므로 더 이상 전시가 유보될 이유가 없기에 본래 공간에 전시돼야 한다”며 “16일까지 ‘세월오월’을 전시하고, 사퇴한 윤봉모 전 책임 큐레이터가 복귀되지 않으면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참여 작가들의 작품 철수라는 초유의 사태가 시작됐고, 이것은 이 전시가 본래 기획되고 의도한 바가 절대 아닐 것”이라며 “‘세월오월’은 홍성담 작가가 주필을 잡고 광주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탄생시킨 시민참여형 결גע고

립”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 이름이 들어간 작가는 박대성·주재환·윤광조·오원배·강요배·최병수·정영창·홍성민·이윤엽·이세현·임홍순 등 국내 참여작가 17명 중 11명이다. 또 케테 콜비츠 작품을 대어해준 사키마 미치오 사키마미술관장과 히가토요미츠, 긴조미노루 등 해외 작가와 미술인 3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특별전 자문위원을 맡은 이나바 마이 광운대 교수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탄원서에 사키마미술관장과 오키나와 작가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타포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10-0487234호 특허 제10-1228195호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헬렌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